

4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5093.54 (-698.37)	978.44 (-159.26)
금리 (연이자율)	환율 (원/달러)
3.223 (+0.043)	1473.25 (+7.15)

# metro 경제

후발유 값 하루새 42.6원 ↑ 28개월 만에 최고 02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0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3월 5일 목요일

## 증시 이틀째 패닉 셀링... 5천피도 위태

## 적자끊고 연내 반등 삼성전자 파운드리 영업익 2000억 예고

### 이란發 한국 증시 직격탄

코스피 12% 폭락 5093.54 마감 역대 7번째 '서킷 브레이커' 발동 삼성 11.74% 하락 17만2200원 SK 9.58%, 현대차 15.80% 내려 하루만에 국내증시 135조 증발

40대 직장인 하모씨는 "3월이 시작하자마자 '검은 화요일(3일)'에 이어 '검은 수요일(4일)'까지 투자금 수천만원 이이를 새 날아갔다"며 "한반도에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허무하게 손실을 보니 역시 국장(한국 주식시장)에는 투자하는 게 아니란 생각이 든다. 도박장 같다"고 말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 후폭풍이 글로벌 주식시장을 강타했다. 코스피는 5090선대에서 턱걸이 했고, 원·달러 환율은 10.1원 치솟으며 1500원선에 바짝 다가섰다.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추락했다. '검은 화요일'을 뛰어넘는 '검은 수요일'이다.

#### 〈관련기사 2·3·4면〉

4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2.06% 하락한 5093.54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12.64% 하락했다. 하루치 하락률로는 2001년 9월 12일(-12.02%) 이후 최대 하락률이며, 지수 낙폭(698.37포인트)으로는 사상 최고치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여파로 국내 증시가 급락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 전광판에 코스피와 주요 종목 증가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그야말로 국내 증시는 '최악의 하루'를 보냈다. 장 초반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낙폭이 커지자 양쪽 시장에 모두 서킷 브레이커(1단계)가 발동됐다. 코스피 시장의 서킷 브레이커는 1998년 도입 이후 7번째, 코스닥은 2001년 10월 이후 역대 11번째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80.43(27.71%)까지 치솟았다. 코스닥 지수는 978.44(-14%)까지 떨어졌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무려 11.74% 하락하며 17만2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하루 만에 국내 증시에서 135조원이 증발한 셈이다. SK하이닉스

는 9.58% 급락했다. 현대차는 15.80% 급락한 50만1000원, 방산 대장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7.61% 하락한 132만3000원에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 시가 총액은 약 440조원, 코스닥 시가총액은 약 87조원이 날아갔다.

이날 기관은 5888억원 가량을 팔아치웠다.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2312억원, 797억원을 사들였지만, 지수를 떠받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 증시도 '초토화'됐다. 일본 닛케이225와 대만의 가권(자취안)지수는 각각 3.61%, 4.35%씩 하락했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와 홍콩 항셱지수도 중동발 여진에 무너져 내렸다.

이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미국의 공습으로 폭사한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그의 차남인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소식에 투자심리가 냉각됐다. 시장에서는 이란이 결사항전을 택했다고 본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 해군 부사령관 모하마드 아크바르자데도 "반복적인 경고를 무시한 10척 이상의 유조선이 각종 미사일 공격을 받아 불에 탔다"고 밝혔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 유가 급등에 원화는 약세... 한은, 금리 딜레마

### 중동 확산... 유가 80달러대 굳혀 연준 금리인하 기대 9월로 밀려 유가 더 상승시 韓 물가·금리 압박

중동 전쟁 확산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80달러대를 굳히자 글로벌 시장이 인플레이션 재점화와 연준 인하 지연' 시나리오를 재가동하고 있다. 유가발 비용 인플레이션이 달러 강제와 원화 약세로 이어질 경우 수입물가와 국내 금리 경로가 동시에 압박을 받으면서, 한국은행의 정책선택지가 더 좁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브렌트유는 배럴당 82.57달러(1.4%)로 올랐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75.28달러로 상승했다. 미·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이란의 역내 에너지 인프라 타격, 선박 공격이 겹치면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차질이 커지고 전쟁위험 보험 취소가 확산되는 등 물류·보험 비용 충격이 현실화했다.

유가 급등은 에너지 가격 자체를 넘

어 물가와 금리 기대를 흔든다. 운송비와 정유·화학 원가를 통해 수입물가를 밀어 올리고,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면 서비스 물가로 2차 파급이 변질 수 있다. 특히 이번 충격은 '공급 충격' 성격이 강해 경기 둔화 국면에서도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은행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채권시장은 인플레이션 경계로 반응했다. 미 국제 2년물 금리는 3.498%로 올라(채권값 하락) 장중 3.599%까지 치솟는 등 단기금리 변동성도 확대됐다. 이에 로이터는 유가·가스 급등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가 7월에서 9월로 밀렸다고 전했다.

미국 실물지표에서도 '비용 인플레이션' 신호가 확인됐다. 미국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2월 52.4로 확장 국면을 유지했지만, '가격지수(Prices Paid)'는 70.5로 전월(59.0) 대비 11.5포

인트(p) 급등해 2022년 6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제조업체의 투입비용(원자재·부품) 물가 압력이 빠르게 커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내 주식시장은 지난 3일 7.24% 급락 이후 4일에도 큰 폭의 조정을 이어갔다. 중동 전쟁 여파로 투자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었다. 환율은 지난 3일 주간거래 증가(1466.1원) 이후 야간거래에서 한때 1505.8원까지 치솟았다가 이날 전 거래일(오후 3시30분 종가 기준)보다 10.1원 오른 1476.2원으로 장을 마쳤다.

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오를 때 한국은행의 딜레마는 커진다. 유가 상승은 성장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지만, 원화 약세는 수입물가를 통해 물가를 다시 밀어 올린다. 경기가 흔들리면 원화가 필요해도 물가·환율 불안이 커지면 인하의 속도와 폭을 키우기 어렵다는 구조다. 연준의 금리 인하가 늦춰져 달러 강세가 길어질 경우 원화 변동성은 더 커

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관건은 유가가 80달러대에서 더 뛰어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지,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추가로 뒤로 밀릴 지다. 에너지 가격이 '일시 충격'에 그치지 않고 비용·기대인플레이션을 흔드는 국면으로 넘어가면, 달러 강제·원화 약세가 맞물려 한국의 물가·금리 경로를 동시에 압박하는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

한은은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일시적으로 넘기도 했지만 현재 달러 유동성이 풍부하고 우리나라의 대외채입 자산금리 및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원화 환율 및 금리가 경색수지 등 국내 펀더멘털과 괴리되어 과도하게 변동하는 지 면밀히 살펴보고, 시장심리가 한 방향으로 쏠리지 않도록 필요 시 정부와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 내년 예상 '손익분기점' 앞당겨져 평택 파운드리 가동률 80% 돌파 '엑시노스2600' 가동률 상승 요인

당시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 영업익은 전분기 2700억원 흑자에서 4조 5800억원 적자로 급락했다. 이후 분기마다 1조원 안팎의 적자를 기록해 오며 삼성전자의 '아픈 손가락'으로 불리기도 했다.

다만 지난해부터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테슬라와 애플 등 빅테크의 대규모 위탁생산 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 중국·유럽 등 다양한 고객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사업 환경이 우호적으로 조성되고 있다. 여기에 퀄컴의 올해 하반기 공개 예정인 신형 스냅드래곤 수주 가능성도 거론되며 파운드리 사업 개선세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전자의 평택 파운드리 가동률은 최근 80%를 돌파했다. 일부 공정의 경우 90% 수준까지 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가동률 상승 요인으로는 삼성전자의 자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인 엑시노스2600이 꼽힌다. 엑시노스는 삼성전자 DS 부문 시스템 LSI사업부가 설계하고 파운드리 사업부가 제조하는 수직계열화 구조를 상징하는 제품이다.

이달 공개된 갤럭시 S26 기본형과 플러스 모델에 엑시노스 2600이 탑재되면서 파운드리 생산량 확대에 따른 가동률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엑시노스 2600은 삼성전자의 2나노 1세대 공정이 처음 상용 적용된 사례인 만큼 성능과 안정성에 대한 시장 평가가 향후 2나노 2세대 공정 확대 여부를 가를 것으로 관측된다.

/차현정 기자 hyeon@



metro

### 메트로 한줄뉴스



▲국힘, 지선 앞 '90년대생 청년' 인재 5명 영입... "미래세대 중심 정책 혁신" /사진 뉴시스  
▲조국, '돈 준 적 없다' 김성태 독취에 "李 공소취 소돼야"

▲與 국조추진위 "쌍방을 대복송금 조작기소...李 공소 즉시 취소해야"  
▲송영길 "계양에 또 빚졌다...이재명 정부에 보탬 위해 역할"

▲박수현 "역겹다...헌법 뒤에 숨으면 썩은 냄새 사라지나" 조희대 사퇴 촉구  
▲한병도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 규명은 국회의무"...국정조사 예고